

S-OIL MAGAZINE
JUNE VOL.391



프리미엄 윤활유 'S-OIL 7' 출시



가족 이야기



표지이야기

9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안전 · 보건 · 환경 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 실현(Global standard in SHE management)을 통해 회사의 성공적인 미래를 눈앞의 현실로 바꾸어나가는 인천저유소를 소개합니다.
(관련기사 17~21쪽)

04

주요소식

태화루 건립 준공식
프리미엄 윤활유 'S-OIL 7' 출시
CEO 지역본부 격려 방문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캠페인

'올해의 선도과학자 펠로십' 선정
Think Twice 캠페인
오영수문학상 후원
단신



17

최강 팀

날마다 새로운 안전강화의 현장
인천저유소



22

소식 모아보기

명예로운 동반성장을 향한 출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철학

24

두런두런 수다방

시원하게 물살 가르는 자타공인 물개들

통권 제391호

발행일 2014년 6월 3일

발행처 에스-오일주식회사 광고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공덕동 471)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편집·디자인 (주)디자인소호 02-514-5164

인쇄 (주)성환인쇄 02-2273-0583

26

햇살나눔

햇살나눔 캘린더
어린이 동행 야외활동 & 장애인 동행 요리활동
햇살나눔 단신



38

건고 싶은 길

바다 갈매기 벗어나며 걷는 '갈매길'
부산 기장 등대길



32

No.1 주유소

터줏대감의 고집으로 다진 굳건한 신뢰
전북 익산 마한주유소



42

나의 롤모델

리더는 '준비'하고 '책임'져야 한다
충무공 이순신



34

가족 이야기

태명은 '만복이'! 만 가지 사랑을 품은 가족입니다
Aromatics생산1과 정성민 사우 가족



44

야호! 축제다

아스라이 빛을 밝히는 청정무구한 밤 전북 무주군 '무주반딧불축제'

46

열린 서재

당신의 제주 여행 레벨은 몇입니까? 고선영, 김형호 <제주 여행의 달인>

48

마음 읽기

게임하다가 밤새지 말~란 말이야 <게임 중독>

50

독자광장

고고한 누각으로 바로 세운

울산의 역사문화

태화루 건립 준공식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고 쾌적한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유서 깊은 누각인 태화루가 복원된 가운데, 우리회사는 건축비 전액인 100억 원을 후원했다.

글 심규익(대외업무팀)
사진 전부순



우리회사가 공사비 100억 원을 후원해 건립된 울산의 태화루가 5월 14일 준공식을 맞이했다. 나세르 알 마하서 CEO는 울산 중구 태화루 준공식에 참석해 울산의 역사적 상징물이자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이 될 태화루 복원을 축하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성환 울산시장 권한대행, 이재현 울산시의회 의장 권한대행, 김철 태화루건립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비롯한 울산지역 문화예술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마하서 CEO는 태화루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마하서 CEO는 “울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에스-오일은 기업시민으로서 울산 시민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태화루 건립을 후원하게 됐다”고 밝히고 “과거 영남3루로 명성



이 높았던 태화루 완공으로 울산의 역사성과 전통성이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도심에 자리한 태화루를 통해 “시민들이 역사·문화 도시 울산에 대해 높은 자긍심을 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5월 1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된 태화루는 문화해설사가 배치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우리회사는 울산의 지역 공동체와 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공장이 있는 울산에 기업 최초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2007년부터 지역농가, 불우이웃, 장애인, 청소년, 복지시설 단체를 후원하는 한편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오영수문학상, 아름다운눈빛미술제, 병영서낭치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영남 3루로 꼽히던 울산의 대표적인 누각, 태화루

『삼국유사』에 따르면 당나라에서 불법을 구하고 돌아온 자장(慈藏, 590~658)울사가 643년(선덕여왕 12) 울산 태화강 황룡연 절벽 위에 태화사를 건립했다고 한다. 이 때 세워진 경내 누각이 태화루다. 밀양의 영남루, 진주의 축석루와 함께 ‘영남3루’로 불렸다. 울산의 상징적인 누각으로 여러 차례 중수하며 명맥을 이어왔으나, 임진왜란을 전후해 멸실되었으리라 추정하고 있다.

새로 건립된 태화루는 정면 7칸, 측면 4칸, 주심포 양식의 본루를 비롯해 대문채(106.56㎡), 행랑채(32.4㎡), 사주문(7.29㎡), 휴게동, 문화동 등이 함께 들어섰으며 야외공원 및 경관조명이 설치됐다.



좋은 기름
노하우 담은

고성능 명품
엔진오일



프리미엄 윤활유
'S-OIL 7' 출시

—
우리회사는 연비 향상, 환경친화, 원활한 운전, 엔진 보호, 불순물 제거 기능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윤활유 브랜드 'S-OIL 7'을 선보이면서 100% 합성엔진오일 제품 6종을 출시했다.

글 권대웅(윤활마케팅전략팀)
사진 전부순



우리회사가 새로운 프리미엄 윤활유 'S-OIL 7 (에스-오일 세븐)'을 출시하고 '좋은 기름'의 명성을 이어간다. 5월 26일 반얀트리호텔(서울시 중구 장충단로)에 마련한 최고급 윤활유 브랜드 'S-OIL 7' 출시 기념식에서 우리회사는 100% 합성엔진오일 제품 6종을 공개하고 국내외 프리미엄 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 확대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나세르 알 마하서 CEO와 에스-오일 토탈윤활유의 파스칼 리고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윤활유 대리점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축하했다. 이날 출시 기념식에서 우리 임직원들은 'S-OIL 7' 브랜드 개발 경과 발표와 설명회로 신규 제품에 대해 상

세히 소개했다.

마하서 CEO는 'S-OIL 7'에 대해 "윤활유 원료인 윤활기유에서부터 최종제품 제조까지 세계적 기술력과 품질 우수성을 확보하고 있는 에스-오일의 강점을 극대화한 미래지향적 최고급 브랜드"라고 소개했다. 이에 덧붙여 "지난 1989년 윤활유 완제품 시장에 진출한 이후 25주년을 맞아 윤활유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에스-오일토탈윤활유 파스칼 리고 CEO는 "'S-OIL 7'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가진 윤활유를 찾는 한국의 운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축하인사와 각오를 전했다.





강기태 상무는 “S-OIL 7은 고성능 윤활유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품질 고급화에 중점을 둔 프리미엄 윤활유 브랜드로서, 나날이 발전하는 자동차 기술에 대응해 엔진에 요구되는 연비 향상, 환경친화, 원활한 운전, 엔진 보호, 불순물 제거 기능에 최적화한 제품이며, ‘최고급 명품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다부진 의지를 바탕으로 자동차의 주행기능 개선과 운전자 만족도 향상에 관한 고객가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고 밝혔다.

‘S-OIL 7’은 약 1개월 동안 내수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전 판매가 진행된 가운데 그 집계 결과가 출시 기념식 당일 발표됐다. 이에 따라 류열 수서부

사장은 최대 물량 구매 대리점 세 곳에 순금 7톤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드로잉 쇼’ 팀의 축하행사 공연과 만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출시 기념식이었다”며 매우 만족한 모습으로 새 제품의 활약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새 브랜드 출시와 함께 가솔린·디젤·LPG 엔진의 특성과 승용·RV·승합차 등 차량의 주행 특성에 맞춘 100% 합성 엔진오일 제품라인 6종이 공개됐다. 우리회사가 생산하는 프리미엄 윤활기유(Group III)와 전통적인 합성기유인 PAO(Poly Alpha Olefin)를 원료로 최신 첨가제 기술을 적용해 성능과 친환경성을 크게 강화했다.

‘S-OIL 7’은 우리회사가 원료 공급과 제품 개발, 해외 판매를 담당하고, 자회사인 에스-오일토탈 윤활유가 제조와 내수 판매를 맡는다. 국내의 주요 윤활유 브랜드 중 100% 합성기유를 원료로 제품 전체를 라인업하는 것이 매우 드문 현실에서 우리회사는 이번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전 세계 윤활기유 시장에서 축적한 높은 신뢰도와 판매망을 적극 활용해 프리미엄 엔진오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새 각오로 충만한 현장을

응원합니다

CEO 지역본부 격려 방문



나세르 알 마하서 CEO가 5월 22일 서부지역본부를 방문했다. 마하서 CEO의 이번 방문은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은 서부지역본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태우 상무를 비롯한 서부지역본부 임직원들은 마하서 CEO와 류열 수석부사장, 신동열 부사장 등 일행을 환대하며 따뜻한 포옹과 악수를 나눴다.

마하서 CEO는 하태우 지역본부장과 본부 산하 지사장들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회사 발전을 위한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마하서 CEO는 침체된 경영환경과 나날이 치열해지는 시장경쟁 속에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메가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 최근 회사의 동향을 짚었다. 뒤이어 “이번 조직개편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영업사원들이 판매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해 영업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지역본부장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대형·잠재적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관행으로 굳은 영업활동이 현재 시장 상황에서도 효과적이지 의문을 품고, 새로운 환경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이 새 조직구조 속에

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에 류열 수석부사장도 “본부와 지사가 합심해 서부지역본부가 최고의 본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태우 지역본부장은 관할지역의 주요 현황과 영업성과를 보고하고 지역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영업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서부 지역 6개 판매지사장들은 각 지사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마하서 CEO는 네트워크 확충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판매량 증대를 통해 지역본부 총 판매량 기준 30%의 판매 비중을 확보하겠다는 서부지역본부의 목표에 큰 관심을 표하면서 “본부와 지사가 협조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하서 CEO는 뒤이어 마련된 식사자리에서 열정과 활기가 가득한 서부지역본부의 분위기를 치하하며 직원들이 의욕을 북돋웠다. 지역본부 및 판매지사 직원들은 최고 경영진의 방문을 계기로 한층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향한 힘찬 행보에 맞춰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 뒤 처음으로 마하서 CEO가 서부지역본부를 방문했다. 조직개편에서 큰 변화를 맞은 서부 지역본부는 강한 목표 달성 의지를 보였다.

글 채만기(서부영업지원팀)·조준영(소매관리팀)

안전한 일터 향해

오늘도 쾌속질주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캠페인

우리회사 온산공장에서 안전캠페인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안전에 관한 의식을 일대 전환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근절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 박평수(안전기획팀)

운영총괄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증진해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안전캠페인이 5월 21일 온산공장에서 실시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울산지도원, 안전문화운동추진울산광역시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캠페인에는 안전 관련 부서 임직원을 비롯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총 45명이 참가했다.

이날 캠페인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보다 크게 대두되고 범국민적 관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울산지역에서 누출·폭발·화재를 비롯해 추락·협착·질식 등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마련됐다. 우리 임직원은 캠페인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일대 의식전환을 꾀하고 사고발생 일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근절에 관한 특별 결의·예방 기간(2014. 5. 16~31)을 정하는 등 재해 없는 사업장 실현을 위해 만전의 대책을 수립·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캠페인 활동은 출퇴근 시간대에 적극적으로 펼쳐졌는데, 우리 임직원을 비롯한 캠페인 참가자들은 '작업 시작 전 점검으로 화재·폭발 예방



하자' 등의 산업현장 안전문화 슬로건을 힘차게 외치면서 안전인식을 강화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습관화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회사는 임직원과 협력업체를 아울러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활동을 지속해온 가운데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한 안전의식 함양 캠페인 전개, 안전회의 개최 등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기초과학의 눈부신 내일을

지원합니다

과학문화재단

‘올해의 선도과학자 펠로십’ 선정

고독하고 힘든 기초과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목들을 위해 우리 과학문화재단은 ‘올해의 선도과학자 펠로십’을 제정했다. 연구 한 길에 전념하는 모든 기초과학자들에게 힘을 불어넣고자 하는 우리회사의 작은 노력이다.

글 박수지(홍보팀)

사진 전부순

기초과학이 미래의 씨앗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과학문화재단이 ‘올해의 선도과학자 펠로십’ 수상자로 유룡 교수(카이스트 화학과 특훈교수)를 선정하고 연구지원금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 교수는 새로운 나노 다공성 물질과 촉매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과학문화재단은 앞으로 6년 동안 연 5천만 원씩 3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의 선도과학자 펠로십’은 과학문화재단이 제정·시행하는 기초과학 분야의 학술상이다. 재단은 2012년에 이 학술상을 제정하고, 기초과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과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국내 연구자를 선정해 학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물리, 화학, 생리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해마다 1명의 연구자를 선정해 6년 동안 3억 원의 연구장려금을 제공해오고 있다. 첫 수상자로 고체물리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임지순 교수(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석좌교수)가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마이크로RNA 분야의 권위자인 김빛내리 교수(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S-OIL 과학문화재단’은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기초과학분야 학술연구 지원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우리회사가 2011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선도과학자 시상식 이외에도 ‘우수 학위 논문상’을 제정해 물리·화학·생물·수학·지구과학 분야의 젊은 과학자를 선정해 각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이어가며 과학계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최고가 곧 세계최고, 국가대표 화학자 유룡 교수

유룡 교수는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화학과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화학)를 취득했다. 이후 로렌스버클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고 1986년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05년에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고, 2009년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국가과학자에 선정되었다.

유 교수는 나노 다공성 물질과 촉매 연구에서 약 20년간 230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주요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며 이 분야를 이끌어 오고 있는 선도과학자이다. 2009년에는 석유화학 촉매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계다공 제올라이트의 새로운 합성 방법을 개척하여 네이처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업적으로 2010년에 아시아 국가 연구실에서 최초로 다공성 물질 연구 분야 최고 영예인 브렉상(Breck Award)을 수상했다. 또한 유 교수의 제올라이트 연구는 2011년도 12월 사이언스지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연구 과학기술 성과’에 소개되는 등 앞으로 석유화학 분야의 촉매 공정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닦았다고 인정받고 있다.



과학문화재단이 펼치는 활동들

과학 분야 지원 사업		한·중동 문화교류 프로그램	
올해의 우수논문시상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전국대학총장협회에 위탁하여 기초과학 분야의 박사논문 중 탁월한 논문을 선정, 시상	한·아랍 구연동화	한국과 아랍의 전래동화를 10편씩 선정하여 한국어와 아랍어 두 버전으로 더빙한 플래시애니메이션 제작
선도과학자 지원	기초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는 우리나라 대표과학자를 선정하여 연구장려금 지원	한·아랍 대학생 교류	한국과 아랍의 대학(원)생 중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환방문 프로그램
앙코르프로젝트	은퇴한 고경력 과학자들의 노하우를 해외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지식나눔 활동 (www.encorekorea.com)	한·아랍 문화교류네트워크 홈페이지 운영	한국외대 서정민 교수 이하 대학원생들이 주축이 되어 아랍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www.kacen.org)
글로벌유학생멘토링	한국 내 대학교에 유학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젊은 교수와 기업이 멘토링	아랍어 스피치 컨테스트	매1년마다 사우디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아랍어 스피치 컨테스트를 지원
과학영재아카데미	초등학교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멘토 프로그램	중동문화 바로알기 프로그램	중동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사진전 등)

비용절감과 이익개선을 향한

자발적 무한도전

Think Twice 캠페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에서 성공적인 미래를 모색하는 회사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비용절감 및 이익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Think Twice'의 주체는 바로 우리다.

글 백연경(총무팀) · 윤원섭(기획분석팀)

사진 전부순

자료제공 김명현(총무팀)

최근 침체된 경영환경과 날로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회사의 노력에 임직원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Think Twice' 캠페인을 계획해 시행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 캠페인은 지난 4월 운영 총괄이 시행에 착수한 데 이어 5월에 전사로 확대돼 비용절감과 이익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회사의 긴축예산 정책과 향후 대규모 투자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에 헌신적으로 동참하고 나섰다.

본사에서는 조직별로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비용절감·이익개선 아이디어를 모았다. 임직원들은 각 본부와 부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캠페인에 부합하는 체크리스트를 앞다투어 내놓았다. 이렇게 취합한 아이디어들을 다시 전사에 공유해 업무 현장에서 비용절감·이익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침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이메일과 커뮤니케이션포털, 사내방송, 배너 등을 통해 캠페인 동참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지속적으로 참여자가 늘었고 그만큼 실효성도 높아졌다.



이에 앞서 운영총괄에서는 캠페인 확산을 위해 포스터와 다이어리 속지, 스티커 등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1건 이상의 비용절감·이익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부문 간 소통활성화를 통해 수익개선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운영총괄은 이 캠페인이 회사와 임직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하고 긴축예산 목표 달성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정기적으로 성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전사 공통 체크리스트

현재 낭비 요인은 없는가?

- 꼭 필요한 후원/출장/행사/회의인가?
- 꼭 지금 필요한 물품/용역 구매인가?
- 에너지나 물자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 PC 전원 차단/사무실조명 소등/2개층 이하 계단이용/냉·난방시 창문닫기를 생활화 하고 있는가?
 - 물품 재활용/Paperless Office에 동참하고 있는가?
- 혹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가?
 - 불필요한 전기 사용, 불필요한 공간 사용 등

추가적인 이익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 꼭 필요한 사항이라도 축소나 연기는 불가능한가?
- 기존 업무에 대한 비용절감/이익 개선의 다른 대안은 없는가?
- 새로운 기술이나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획기적 개선 방안은 없는가?
- 절감/이익개선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문예 도시 향하는 길에

징검다리 놓습니다

오영수문학상 후원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지지하는 우리 회사는 오영수문학상 후원을 지속해왔다. 지역 출신 문인의 발자취를 좇는 자랑스런 올해의 오영수문학상 수상자는 소설가 표명희 씨다.

글 송경란

사진 박석수(대외업무팀)

자료제공 심규익(대외업무팀)

우리회사가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후원해온 오영수문학상이 22돌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 수상의 영예는 소설가 표명희 씨에게 돌아갔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단편소설 '심야의 소리.mp3'는 계간문예지 <한국문학> 2013년 겨울호에 발표된 것으로, 작품심사는 소설가 윤후명·김원우 씨, 문학평론가 장경렬(서울대 영문학과) 교수가 맡았다.

시상식은 5월 30일 울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용연 전무가 참석해 수상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오영수문학상 후원기업으로서 지역 문화발전을 지지했다. 오영수문학상은 소설가 오영수 선생의 투철한 문학정신과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울산매일신문사가 1993년 작가의 14주기에 맞춰 제정한 상이다. 그 이듬해에 우리회사는 오영수문학상 공동주관에 나선 이래 현재까지 후원활동을 지속하며 선도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해왔다. 그 사이 오영수문학상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충된 문학제로 발전해 오늘에 이르



고 있다.

오영수 선생은 '갯마을', '화산택' 등 주옥 같은 단편소설로 우리 소설문학 장르를 풍성하게 만든 인물이다. 1977년 5월 서울에서 낙향해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서 여생을 보내고 1979년 향년 71세로 타계할 때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쳐 15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

우리회사는 오영수문학상 후원을 비롯해 태화루 건립비 100억 원 전액 지원, 아름다운눈빛미술제, 병영서낭치기 지원 등을 지속하며 울산이 지역 문화유산을 바로 세우고 문화생태도시로서 거듭나도록 하는 데에 적극 힘을 보태고 있다. 🌟



S-OIL NEWS



구도일과 함께 브라질로 출동!

고객 사은행사 브라질 축구응원 여행권 당첨자 탄생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구도일 패밀리 사은행사'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구도일과 함께 브라질로 축구 응원 여행을 떠날 행운의 주인공 5명이 탄생했다. 우리회사가 6월 3일 발표한 5명의 '브라질 축구응원 여행권' 당첨자들은 6월 22일부터 9일 동안 이과수폭포 관광, 산토스 커피 산지 체험뿐 아니라 상파울로에서 축구 경기를 직접 보며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달 15일까지 계속되는 '구도일 패밀리 고객 사은행사'는 우리 계열주유소에서 5만 원 이상(충전소 3만

원) 주유한 뒤 대금을 결제할 때 자동으로 응모되거나 보너스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에 응모하는 2가지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동차, 46인치 3D LED TV, 차량용 블랙박스, 캡슐 커피머신, 엔진오일 1박스 등 풍성한 행운의 기회가 남아 있다. 이외에도 3월부터 진행 중인 '구도일패밀리 1·1·1' 행사도 8월 31일까지 계속된다. 3만 원 이상 주유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년, 1개월, 1일 주유비를 제공하는 이 행사는 보너스카드 영수증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당첨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통해 1천 명의 고객에게 구도일 열쇠고리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1분기 성과우수지사 시상

국내영업본부가 5월 2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1분기 성과우수지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판매실적·수익성·신규주유소 확보실적·당사 영업정책 이행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 우수 상위 4개 지사를 선정한 결과 강북·강남·포항·대전지사가 차례로 순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전 분기 대비 성과개선 지사로 수원지사가 상을 받았다. 신동열 부사장은 각 지사를 대표해 시상식에 참석한 지사장

들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고, 각 지사에 서신을 보내 어려운 시장 여건 가운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정을 기울이고 있는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재난안전 협력 MOU 체결

우리회사가 5월 27일 온산 소방서 대회의장에서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 대량위험물 및 대형화재취약 대상 기업체 25개사와 함께 재난안전 협력 MOU 체결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은 온산 국가산업 화재폭발 등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

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으로, 최근 인명피해를 동반한 화재폭발 등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협력해 안전관리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리회사는 전사 차원의 무재해 및 안전다짐 결의 대회를 비롯해 안전캠페인 시행, 안전회의 운영 등으로 재난 예방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임원동정

퇴임

- 5.31** 이병호 부사장
류경표 부사장

보직변경

- 5.15** 오석동 상무(Transformation본부장 보좌역) → 상무(관리지원본부장 보좌역-노사)

인사동정

파트리더 임명

- 5.15** 이영호(2급.구매팀)→총무부문 구매관리파트 리더

2014 대졸 신입사원(Engineer) 부서배치

- 5.12** 백동민→장치부 예방정비1과 석윤수 김석일→계전부 예방정비2과 강호범 박준호→공무부 설계1과 추영준 홍보인→공무부 설계2과 박동민 이희성 김건희→공무부 설계3과 남경목 이민규→검사부 검사2과 민춘기 백해진 허윤희→정유공정부 정유공정과 김승수→분해공정부 RHDS공정과 이용우 박세훈→분해공정부 HVC/LUBE공정과 배지현→분해공정부 RFCC공정과 서동하 박창은 한승현→석유화학공정팀 김경호→공정자동화팀 안국문→기획분석팀 윤제필 이용석→생산최적화팀 최명원 김지원 지용희→생산조정팀 이태훈→공정Upgrading추진부 정유공정 Upgrading과 진명진 김원경→공정Upgrading추진부 HOU혁신1과 이성현 조준형→공정Upgrading추진부 HOU혁신2과 이찬희 로철권→에너지기술/관리팀 김동엽→안전보건부 안전과 김영진→환경관리팀 이진주→신규사업팀 유진욱 이석범 이윤백→올레핀사업

개발팀 김관희→시설투자기획팀 백재우→TSC개발팀 이세훈→수급계획팀 전송욱→원유팀

보직변경

- 5.12** 송창학(3급.올레핀사업개발팀)→TSC개발팀 김민철(5급.인사팀)→정유Heavy제품팀

- 5.15** 최홍근(2급.구매팀) 최병원(3급.구매팀)→프로젝트구매부문 김신형(5급.신용관리팀)→관리회계팀 김동훈(4급.공무부 설계2과)→공정Upgrading추진부 정유공정Upgrading과 박상욱(4급.장치부 예방정비1과)→공무부 설계2과 금교순(4급.연차보수팀)→장치부 예방정비1과 최경옥(과장.인천저유소운영담당 교대계장)→인천저유소운영담당 이승구(계장.인천저유소운영담당)→인천저유소운영담당 교대계장

- 5.19** 이하영(일반사무직3급.인사팀)→인력개발팀

- 5.26** 이동재(2급.CEO실)→생산최적화팀 정건희(2급.생산최적화팀)→CEO실 여상길(3급. 공정자동화팀)→정유공정부 정유공정과장

입사

- 5.12** 이재욱(2급.석유화학마케팅전략팀) 변홍석(2급. Project금융팀) 송인호(3급.안전관리팀) 김중훈(3급. RUC관리팀) 박수용(4급.RUC추진2팀) 김황호(5급.제품출하부 항무방재과) 박재인(법무원.준법지원팀)

- 5.19** 오경환(3급.Site Preparation부문) 이효석(4급.RUC추진1팀)

부음

- 5.2** 백정옥(수소1과) 부친
5.7 성찬경(수소2과) 부친
조태현(후생과) 빙모
5.8 김재기(멤바십마케팅팀) 모친
고현준(전기과) 조부
5.9 하종태(용선팀) 모친
5.11 서영식(제품운영1과) 빙부
이용춘(석유화학공정팀) 빙부
5.13 하창원(계기1과) 조부
5.16 오두식(전기과) 모친
5.21 김대성(법인영업팀) 빙부
5.22 류경식(대리점영업팀) 부친
5.24 광영호(생산구매지원팀) 모친
5.25 백준기(제품운영1과) 빙모
5.30 임영호(정유1과) 부친

결혼

- 5.17** 전덕건(유회유1과)
5.24 최기진(정유Heavy제품팀)
김성민(예방정비2과)
5.25 윤영민(산업보건과)
정장식(RUC기술팀)
이광동(송유/동력공정과)
이용우(HVC/LUBE공정과)
5.31 이태식(법인영업팀)
신종현(영업전략팀)
6.7 김병태(소매관리팀)
6.15 김재연(장치과)

9 Corporate Initia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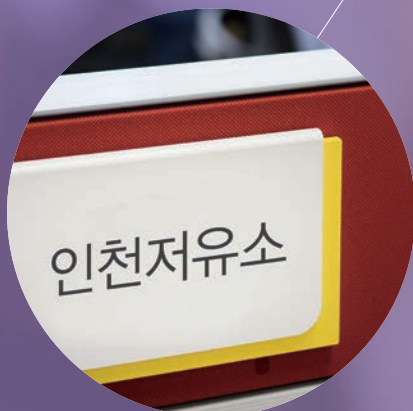
- High margin portfolio through RUC and olefin investment
- Capacity expansion through overseas partnership
- On-going business innovation within core and beyond
- Brand market driven share gain in domestic market
- Overseas stable customer base expansion via partnership

• Global standard in SHE management

- Best-in-class operational excellence
- Strategic HR and mgmt. infra upgrade for performance drive
- Stakeholder communication enhancement



안전 · 보건 · 환경 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 실현



뜨거운 열정과 굳은 포부를 품고 9가지 전사전략과제 중 'Global standard in SHE management(안전 · 보건 · 환경 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 실현)'를 수행하며 회사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인천저유소'를 소개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안전강화의 현장

인천저유소

인천저유소 근무자들의 실력을 말하자면 두말 할 것도 없다. 한 마디로 베테랑이다. 베테랑들이 열심히 하면 그야말로 업무효율과 안정성, 안전은 극대화된다. 날마다 끊임없이 안전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인천저유소를 찾았다.



“
 안전·보건·환경 관리의
 글로벌 스탠다드 실현(Global
 standard in SHE management)’을
 추구하며 안전관리가 실행되어야
 하는 곳은 현장입니다.
 ”



30여 년 내내 불을 밝힌 인천저유소

인천저유소는 1982년 10월 31일 처음 준공되었
 다. 그해 11월부터 일반유 제품을 출하했고 이듬
 해 11월부터는 LPG 제품을 출하했다. 부서는 크
 게 둘로 나뉘는데 운영과와 관리과다. 운영과는
 입하와 저장, 출하 등의 현장업무를 담당하며, 관
 리과는 환경, 예산, 정비, 안전, 소방 등 지원 업

무를 담당한다.

“우리 인천저유소에서는 항공유를 포함한 모든 기름을 취급합니다. 4개조가 3교대로 근무하는데, 이들이 24시간 내내 돌아가며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를 쉬는 때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업무가 돌아가는 사업장이기에 유지관리는 엄격하고 안전에 철저하다. 1998년부터 시작된 무재해 운동은 지난해에 무재해 목표 14배수를 돌파해 더욱 의미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은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CEO께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셨고 우리회사가 목표하는 바 중 하나가 ‘Global Safety Leader’ 아닙니까? ‘마음은 안전의식, 행동은 안전실천’이라는 공통의 구호를 매일 되뇌고 있습니다.”

“
우리 저유소에는
베테랑 근무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은 저절로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안전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숙달하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김은룡 인천저유소장은 무재해 운동의 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작은 사고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최근에는 개인별 ‘My Tank, My Machine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우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공장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안전을 위한 좋은 제도는 그곳이 경쟁사든 유관 부서든 벤치마킹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발전시켜야지요. 우리는 서명란을 추가해서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합니다.”

젊은 피를 수혈해 더욱 힘차진 인천저유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다수인 가운데 신입사원이 들어오니까 활력이 넘칩니다. 신입이라고 어리바리하지 않고 배움도 아주 빨라요. 열정적



이어서 모두가 힘이 납니다.”

총인원 48명, 올해는 정년퇴직자가 5명에 새로 전입해온 인원이 5명이다. 구성원이 이렇게 바뀌는 가운데에도 안전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업데이트 했고 사업장도 업그레이드 했다.

“2005년 TAS(출하)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장비 이력시스템도 포함됩니다. 차량에 부착된 RF-ID로 차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까지의 과정이 바로 입력되지요. 순서에 따라 복잡한 문서를 거치지 않고 출하도 가능해졌고요. 2010년에는 신본관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게 된 구성원 모두가 만족해한다. 건물이 바뀌자 취미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탁구가 주요 여가활동 방법이었다면, 최근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한다.

교대업무의 특성상 모든 구성원이 다 모이기는 어렵다. 그래도 최근에 20여 명이 모여 야외에서 월례회의를 가졌다. 인천대공원 내에 있는 관모산에 함께 올랐고 족구 등 팀 대결도 펼쳤다.

결론은 안전이다

잠깐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전하고 업무를 하러 가는 이들에게서 베테랑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나온다. 김은룡 소장은 안전점검 실천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손보느라 한창이다.

“결국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물류부

문 임원(임희승 상무)의 저유소 사업장에 대한 안전방침인 ‘직원 가족의 행복과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를 실천하고자 인천저유소 모든 직원은 발생 가능한 잠재위험에 대비하여 한마음으로 철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물류라는 게 다루기 쉽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안다.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

이다. 최근에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 각자의 역할을 주고 시뮬레이션 리허설도 한다. 초반엔 역시 쉽지 않았지만 점점 역할이 몸에 익어가고 있다. 말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천저유소 구성원에게 무재해 목표 15배수, 20배수가 먼 일이 아니다. 



MINI INTERVIEW

인천저유소의 특징 및 강점

인천저유소는 서울, 경기, 충북, 강원 영서 지방에 정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중부 물류의 중심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인증 기준에 기초해 1998년 7월 17일부터 무재해 운동에 돌입해 작년 8월 26일부로 무재해 목표 14배수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무사고(Zero Accident)에 도전합니다.

앞으로의 목표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주관하는 PSM 등급심사가 7월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PSM 등급이란 안전과 관련된 시설 및 대처에 관한 평가등급입니다. 최근 안전에 대해 예민한 만큼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졌지만 사전 안전진단 등 철저히 준비해서 최고등급인 P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룡 소장

명예로운 동반성장을 향한 출발

대리점 아너스 클럽 간담회

김선근
대리점영업팀
-
사진 전부분

5월 2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대리점 아너스 클럽(Honors Club)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대리점 아너스 클럽은 우리회사와 더불어 동반성장한다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대리점 정예 모임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우리의 중요한 고객인 대리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호신뢰를 굳건하게 다져 우리 브랜드의 지속성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올해 대리점 아너스 클럽 간담회는 총 7개 대리점의 대표자를 초청한 가운데 출범식을 겸해 치러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류열 수석부사장과 신동열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해 아너스 클럽의 발족을 축하했습니다. 아너스 클럽으로 위촉된 대리점 대표자들과 우리 임직원은 이날 만남에 대해 자축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동반성장예 뜻을 모았습니다. 간담회 이후에는 브랜드체이스 아너스클럽(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으로 자리를 옮겨 나세르 알 마하서 CEO와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대리점 아너스 클럽 제도는 우리회사와 한가족과도 같은 대리점 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모색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선정위원회와 승인절차를 거쳐 최종 아너스 클럽으로 위촉된 대리점의 대표자들은 명예를 인증하는 위촉패를 받았습니다. 또한 향후 회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되는 등 특별한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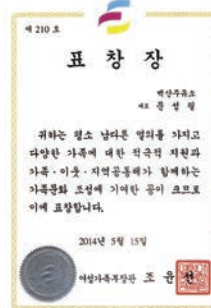
대리점 아너스 클럽은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마련해 소통을 지속하면서 미래 지속성장을 향해 뜻을 모아 나갈 예정입니다. 🌱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철학

백산주유소 문성필 대표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김용수
—
강남지사



별 켜졌던 날이 이어지는 5월, 강남지사에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가정의달 기념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장 수여식에서 백산주유소 문성필 대표가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시상식은 5월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공자를 비롯한 민간기업, 방공사 등 수상 관계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문성필 대표는 여러 수상자들과 함께 당당히 단상에 올라 자랑스러운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분위기를 고려해 그간 해마다 개최해오던 기념행사를 조정해 가족정책 추진으로 포상을 받는 유공자를 대상으로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문성필 대표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고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선 공로로 이번 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주유소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 4대보험 가입 처우를 비롯한 생활안정을 돕고, 직원과 가족같이 지내는 가운데 계절마다 여가활동을 함께합니다. 특히 문성필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봉사단을 조직해 독거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지역 이웃, 저소득층 세대, 한부모 자녀 등에게 물심양면 봉사활동을 지속해 귀감이 되었습니다.

문성필 대표의 선행과 선도적인 경영철학은 이미 지역사회에 명성이 자자합니다. 굴지의 대기업들이 백산주유소를 찾아와 경영 노하우를 배워가고, 명성은 바다를 건너 해외에까지 알려질 정도입니다. 이런 문성필 대표에게 이번 표창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요. 자랑스러운 백산주유소의 더 큰 활약과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 



시원하게 물살 가르는 자타공인 물개들

S-OIL배 울산MBC 전국수영대회 출전기

조영식 계기과

S-OIL배 수영대회는 우리가 접수한다

지난 5월 11일, S-OIL배 2014 울산MBC 전국수영대회가 울산 문수수영장에서 펼쳐졌다. 우리회사는 이번 대회에 울산수영연합회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전달했다.

35개의 동호회 회원 및 개인 수영 애호가 등 총 8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회사 공장 수영 동호회 회원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 대회는 우리 동호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두 대회 중 하나다. 수영 그 자체를 향한 숨길 수 없는 열정,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펼쳐 기록에 도전한다는 기대가 회원들과 응원객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궜다. 다른 해보다 유난히 더 오래, 꼼꼼히 준비를 한 우리 동호회 회원들. 그래서인지 수영장에 들어서는 15명 동호회 회원선수들의 표정에는 비장한 기운이 서렸다.

활력에 찬 물개들의 선전

대회는 그룹을 나눠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그룹은 나이별로 정해지게 되었으며 최종 결정은 울산수영협회에서 한다. 각 그룹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은 해당 나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걸 의미한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고, 마음껏 기량을 뽐내며 출중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먼저 남자 일반부 1그룹 핀자유행 50m 부문. 장치과 조성은 사우가 25초 48를 기록했다.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남자 일반부 4그룹 배영 50m에서는 환경관리팀 이태열 사우가 39초 42로 4위를 했다. 남자 일반부 5그룹 접영 50m에서 연료연구팀 강동일





0.01초의
기록 단축을 위한
아름다운 도전에
함께해요!

사우도 33초 93으로 4위를 했다. 비록 세 손가락 안에 꼽히진 못했지만 좋은 성적임에는 틀림 없었다.

그리고 대망의 단체전인 남자 드래곤핀 200m. 우리 동호회 선수들은 평소 '환상의 드래곤핀조'라고 불리는 이태열 사우, 김원석 사우, 강동일 사우, 정주영 사우 등 4명의 선수가조를 짜 출사표를 던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2분 13초 23, 2위라는 놀라운 기록이었다. 지난 2012년 대회에서 훈계형(점영 · 배영 · 평형 · 자유형) 200m에서 2위를 기록한 뒤 한 해를 거르고 단체전에서 받아 든 소중한 결과였다.

성적보다 가치 있는 아름다운 도전

사실 이번 대회 수영동호회의 성적은 예년보다 좋지 않았다. 은메달 2개, 4위 2명. 값진 결과지만 다른 해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선수들은 마냥 고개를 숙이고만 있지는 않았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기회가 더 많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우리 회원들의 끈기와 노력이 깃든 결과라고 생각하고 더욱 값진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다.

이날 대회는 종합 우승 스웍스타(부산), 준우승 바다수영동호회(울산), 3위는 수영사랑부산(부산)으로 마무리됐다.

우리 회원들은 대회 이후 다시 0.01초를 줄이고자 물살을 가를 것이다. 이날 참가했던 선수들의 아름다운 도전에 갈채를! 🌊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 여기로!

공장 수영동호회

2000년 결성해 현재 배상철(정유생산부장) 회장을 비롯해 80명의 회원이 함께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중견 동호회로 매년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공식대회로는 S-Oil배 울산MBC 전국수영대회와 진해 바다핀수영대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산 바다핀수영대회에 참가한 적도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월1회) 문수수영장에서 정기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영강습 및 훈련주제를 정해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영을 좋아하는 사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기다립니다. 수영을 사랑하거나 저에게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지 수영동호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 문의 : 총무 조영식(계기1과 #2541 choys71@s-oil.com)

5
MAY

위로하는 마음으로 ‘햇살나눔’이 함께합니다

2014년 5월 전사 각 단위 햇살나눔

각박한 요즘, 더불어 살기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성을 다해
나눔을 실천하는 햇살나눔봉사단이 5월에도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사랑을 실천했다.

12



분해3부

봉사단은 해밀어린이집 어린이들과 함께 울주 파충류박물관을 찾아가 직접 비단뱀을 만져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5



① 분해2부

울산시각여성회를 찾아가 봉사단은 시각장애우와 짝을 이뤄 2인승 텐덤자전거를 타고 싸간 도시락을 먹는 등 봄나들이를 즐겼다.

분해2부

봉사단은 울산시각여성회 친구들과 동대산 트래킹을 가졌으며 이후 장애우들이 연습한 오카리나 중창 연주를 감상했다.



사진동호회

봉사단은 안양 소재의 한 스튜디오에 담도폐쇄증환아와 그 가족을 초청해 가족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정유생산부

봉사단은 수연재활원 장애아동들과 울산대공원에 찾았다. 놀이기구를 타거나 함께 산책을 하면서 봄기운을 만끽했다.

24

26



분해1부

봉사단은 약사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영화를 관람했으며,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함께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31

서바이벌 체험장에서 스트레스 타파!

계전부 우리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동행 야외활동

글·사진 권영구(전기과)

계전부 봉사단이 햇살나눔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결연한 우리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우리들의 스트레스 제로(ZERO) 도전기'를 주제로 삼아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다양한 연간 프로그램으로 만나고 있다. 그 세 번째 만남이 성사됐다.

지난 5월 17일, 봉사단과 어린이까지 총 29명이 울산 무거초등학교 앞에 모였다. 이날은 우리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봉사단이 서바이벌게임장에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로 한 날. 봉사단은 야외활동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세부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의할 점을 숙지했다.

서바이벌게임장에 도착한 일행은 봉사단과 어린이가 끌고루 어우러져 두 팀을 이뤘다. '블루'팀과 '블랙'팀으로 게임 복장까지 갖춰 입었다. 서바이벌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승부욕을 드러냈다. 3회 경기로 맞붙은 두 팀은 수풀을 누비며 불꽃 튀는 대결을 펼쳤다. 이어 봉사단과 어린이가 짝지어 사륜오토바이(ATV)로 신나게 달린 뒤 양궁체험장에서 활시위를 당기니 시간이 쏙살같이 흘렀다.

맛있는 점심식사로 일정을 마무리한 계전부 봉사단은 어린이들과 다음 만남을 약속하면서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이제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더없이 친근한 사이가 된 우리지역아동센터 어린이와 봉사단은 6월에 식도락을 주제로 재회할 계획이다. 





소담한 초코머핀처럼 성취감도 쑥쑥!

Aromatics생산2부
울산참사랑의집
장애인 동행 요리활동

글·사진 김봉기(Aromatics생산2부)

Aromatics생산2부 봉사단은 울산참사랑의집과 연계해 즐거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참사랑의집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복지시설이다. 우리 봉사단은 올해 '요리 쿡! 조리 쿡!'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1년 동안 지적장애인과 요리활동을 함께하고 있다.

이번 '요리 쿡! 조리 쿡!'은 동행 요리활동으로 지난 5월 13일 울산시내 한 요리학원에서 열렸다. 앞서 4월에 피자를 만들면서 재미난 시간을 보냈다면 이번에는 초코머핀을 만드는 요리교실이었다. 아침 일찍 울산참사랑의집에 모인 우리 봉사단은 장애인과 인사를 나누고 1대1 파트너를 정한 뒤 요리교실로 이동했다. 이날 메뉴로 정한 초코머핀은 제빵 소재 가운데서도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촉촉달콤한 맛이 일품이라 봉사단과 장애인이 함께 만들기에 적격이었다.

밀가루를 비롯해 버터, 계란 등 재료를 뒤섞고 찰주머니에 넣어 머핀컵에 채우고, 컵에 담긴 반죽에는 아몬드와 초코칩을 얹어 예쁜 모양을 냈다. 오븐 속에 넣은 머핀컵에서는 30분이 채 되지 않아 초코머핀이 소담스럽게 부풀어 올랐다. 완성된 머핀을 보고 봉사단과 장애인 모두 성취감에 탄성을 질렀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시도해보는 경험은 장애인들의 자존감과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데 좋은 기회가 된다. 더불어 봉사단과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만나 먹거리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과정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강화하기에 적합하다. Aromatics생산2부 봉사단은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보다 자신 있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보람된 봉사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

이웃과 함께 사랑 나누기, 행복 더하기

햇살나눔 활동 이모저모

가정의달 5월은 나눔에 있어 뜻깊은 달이다. 우리의 어린이와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했다.
쌀 나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후원금 전달 등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훈훈한 이야기를 한 데 모았다.



울산복지재단 가정의달 맞이 쌀 기부

글 심규익(대외업무팀)
사진 박석수(대외업무팀)

우리회사가 가정의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쌀 나눔을 실천했다. 5월 29일 울
산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김용연 전무는 회
사를 대표해 백미 1천973포(20kg들이, 1억 원
상당)을 울산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
식에는 김명규 울산복지재단 이사과 박성환 울
산시장 권한대행, 김상만 울산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회사가 울산공동모금회에 지정 기
탁한 백미는 관내 저소득계층 1천823세대와 보
훈가정 15세대에 전달된다. 





다문화가정 ‘해피투게더’ 캠페인 기부금 전달

글 신영철(운영지원팀)

사진 전부순

우리회사가 ‘다문화가정 해피투게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후원금 5천만 원을 쾌척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5월 21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서울 종로구 종로 65길)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신혁 전무를 비롯한 우리 임직원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회사는 결혼을 통해 국내에서 가정을 이룬 이주여성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자녀를 위한 보호시설(쉼터)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전달한 후원금은 이주여성의 사회복귀를 돕는 통·번역 전문상담 활동가 지원과 시설을 퇴소해 자립하는 가정을 위한 생필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





터줏대감의 고집으로 다진 굳건한 신뢰

전북 익산 마한주유소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챔피언스클럽 시상. 여기서 네 번이나 수상한 명예로운 주유소가 있다. 바로, '정품정량'의 자부심이 가득한 전북 익산의 마한 주유소다. 쌍용정유 주유소 시절부터 에스-오일 주유소로 이어지기까지 한 장소를 지켰다.

▶ 구연수 대표(뒷줄 오른쪽)와 직원들 그리고 전주지사 이형섭 사우

익산IC를 나와서 미륵사지를 가리키는 도로표지판을 따라가다 보면 722번 지방도 왼쪽으로 주유소 하나가 보인다. 유난히 넓은 대지 위에서 햇수로 22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한주유소다. “이곳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미륵사지는 익산의,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익산시민이 휴식처로 찾는 동시에 일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다.

인근 석산에서 원석 및 골재를 채취하는 중장비와 운반차량이 많아 배달량도 상당하다. 디젤 배달용 3천ℓ 짜리 탱크로리가 2대, 석유 배달용 1천500ℓ 짜리 탱크로리가 2대가 주유소 뒤에 주차되어 있어 배달량을 짐작케 한다. 대형 트럭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단골이 되어 주유소에 차를 맡겨 세워두는 경우도 있다.

“중장비 차량이나 덤프트럭 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뿌듯합니다. 차량의 연비가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 대형 특수차량의 경우 다른 차량에 비하면 극단적으로 연비가 좋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름이 다른 기름보다 연비가 0.3km/ℓ는 더 나온다고 하거든요.”

1993년부터 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구 대표는 에쓰-오일(당시 쌍용정유)의 품질에 반해 다른

기름은 생각지도 않았다. “주유소를 운영하기 전에는 해양대학을 나와서 한동안 배를 탔어요. 선박을 탄 경험 때문인지 정확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유소 개업 전 소비자 입장이었던 80년대부터 에쓰-오일 기름만 넣고 다녔어요. 주유소 개업을 생각하면서는 다른 곳은 생각도 하지 않고 에쓰-오일에 찾아갔지요. 지금까지 다른 기름은 한 차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게 내 자랑거립니다.” 주유소를 살피는 구 대표의 눈이 그득하다. 30대 초반, 젊은 시절을 함께한 주유소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다.

“정품정량으로 대표되는 품질, 신뢰에 대한 건 사업의 기본 아닙니까! 셀프주유소가 많아져 가격경쟁력이 낮아져도 품질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꾸준히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마한주유소가 20년이 넘도록 꾸준히 사랑받은 이유이자,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챔피언스클럽 시상에서 이번 최우수상을 비롯해 무려 4회나 수상한 저력의 바탕이다.

💧 사랑받는 주유소, 사랑을 베푸는 주유소

“주민들하고 친해요. 조금 일찍 영업을 마치는

날이면, 다음 날 주민들이 찾아와서 ‘어제는 일찍 닫으셨는데 무슨 일 있었나요?’ 하고 묻습니다.” 모두 다 이웃사촌인 이곳에서 구 대표는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사랑도 실천한다.

“10년 정도 되었네요. 에쓰-오일 주유소를 운영하는 젊은 친구들과 봉사 모임을 만들었어요. 주유소를 운영해서 먹고 사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름을 지원하자는 게 처음 생각이었지요. 이후 기름 대신 현실적인 지원을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사회와 관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1년에 약 1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성한 단체는 ‘에쓰-오일 한마음회’로, 옆에서 한 마디 거든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구 대표는 ‘모임의 정신적 지주’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은 고객이 먼저 안다.

“제 성이 구 씨잖아요. 에쓰-오일 캐릭터 구도일이 내 아들이라고 주변에서 말해요. 앞으로도 품질로 승부하는 성장하는 주유소로 활약할 겁니다.”

여유로운 표정으로 챔피언스클럽 최우수상배너를 바라보는 구 대표의 눈이 자신감으로 빛난다. 🌿



구연수 대표

마한주유소를 소개한다면

오전 5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주유소로 저까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93년 개업해서 청춘을 함께한 주유소로 2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쌓은 신뢰관계가 마한주유소의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앞으로의 목표와 포부는

신뢰가 깨지는 건 무조건 주유소의 잘못이라는 생각으로 고객과 지역주민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품질과 양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한주유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들녘인 호남평야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미륵산 인근의 주유소. 익산IC에서 익산 방향 722번 지방도변에 있다. 미륵산에는 추정 규모로는 한국 최대의 사찰지인 미륵사지(국보 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소재)가 있어 관광객이 많다. 석산에서 이용하는 중장비와 원석 및 골재를 운반하는 차량들이 주요 고객이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지로 121 (서고도리 96-2)

☎ 063)836-8596

태명은 '만복이'! 만 가지 사랑을 품은 가족입니다

Aromatics생산1과 정성민 사우 가족



다가오는 7월이면 ‘아빠’가 될 정성민 사우가 아내와 양가 어머니를 위해 이벤트를 신청했다. 고향인 부산의 바닷가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샤브샤브를 먹게 된 가족, 장모님과 시어머님,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가득 사랑이 묻어났다.



임신부에게는 유난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씩은 있다. 이벤트를 신청한 정성민 사우는 아내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이 샤브샤브라고 하면서, 음식점 선택의 최우선 순위를 아내의 기준에 맞췄다.

“꼭 샤브샤브여야 했어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임신한 아내에게 알맞은 음식이거든요.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임신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물리지도 않네요.” 부부는 두 분의 어머니와 함께 식당에 들어섰다. 한 분은 부부의 시어머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장모님이었다. 사돈기간인 두 분은 매우 자연스럽게 서로의 앉을 자리를 권했다. 억지로 꾸며내지 않은 행동에서 속 깊고 다정한 인품이 자연스레 배어나온다. 정 사우 부부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미소는 가족의 내력이다.

우리는 삶이라는 여행의 동반자입니다

“2011년 초에 저희 회사 선배님과 아내 회사 팀장님 소개로 만나 1년간의 짧은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2년간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정 사우 부부는 연애하듯 자유롭게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한다. 특히 비행기 표와 숙소의 예약, 일정 계획까지 모든 걸 두 사람이 직접 했던 작년 5월의 싱가포르 여행이 기억에 남는다.

“배낭여행과 다름없이 걸어서 이동했어요. 힘들었지만 걷지 않았으면 보



“
보석과도
같은 가족,
배려 속에
살고 싶어요
”



지 못했을 싱가포르의 구석구석을 구경할 수 있었죠. 왜 힘든 상황에서 서로의 본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 서로 보지 못했던 점도 많이 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 번 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이와 함께 가서 재밌게 놀고 싶네요.”

아내 김민 씨가 임신한 상태다 보니 모든 관심사가 아이에게 집중돼 있다.

“7월이면 우리 공주님이 세상에 나와요. 세 식구가 되는 거지요. 만 가지 복을 가지고 태어나라는 의미에서 ‘만복이’라고 태명을 붙였어요. 아이와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태어날 아기 이야기가 나오자 정 사우, 정 사주의 아내와 양가 어머니의 표정이 눈에 띄게 활짝 편다. 정 사우에게 익힌 소고기 샤브샤브 한 조각을 건네는 아내분과 그런 아내에게 월남쌈을 싸 입에 넣어주는 정 사주를 어머님들께서 그윽하게 바라본다.

“재들이 저래요. 다행이지 뭐. 지금은 이렇지만 살다 보면 맛이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양보하고 맞춰가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것밖에 바랄 게 없어요. 그런 가정에서라면 이제 태어날 만복이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크겠지요?”

보석과도 같은 가족, 배려 속에 살고 싶어요

정 사주는 스스로를 ‘개구쟁이 같은 면이 많은 남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아내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운동도 함께 하는 가정적인 가장이 되고 싶다.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은 겸손한 그의 말과는 다르다. 의지할 만한 든든한 남편이라고 잘라 말한다. 다만 잘못된 걸 보면 유독 참지 못하는 성격은 아이를 위해 가라앉혀 줬으면 좋겠다.

“결혼 2년만에 살 집을 마련해서 이사하게 되었는데, 장하죠.”

부모님들이 보기에도 두 부부는 충분히 잘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 의미를 찾자면 끝도 없을 말을 꺼내고는 부부는 쉽게 결론을 내린다. “보석이지.” 이들에게는 가족이 보석처럼 빛나는 귀한 존재다. 분가해 살다 보니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 죄송했는데 좋은 기회로 즐거운 식사를 했다는 부부는 양가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하는 여행을 추진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데 우리 가족, 내 아이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인다. 속 깊은 예비 부모, 정 사우 부부의 얼굴에서는 함박웃음이 떠날 줄을 모른다. 



“
부모님, 장모님, 만복아!
사랑합니다!
”

언제나 남편 먼저 생각해주는 아내에게...

나와 결혼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가정주부로 생활하게 된 걸 보면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서.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고 챙겨줘서 고마워. 평소에 내가 개구쟁이 같은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든든한 남편, 가정적인 가장이 되도록 노력할게.

살이라는 여행의 동반자 남편에게...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지났네요. 시간 참 빠르다. 그 동안 우리 여행도 많이 다니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지요. 항상 곁에서 많이 도와주고 챙겨줘서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양가 부모님이 댁에게...

한 가족이 되어 예쁘게 살아줘 고맙다. 앞으로 즐거운 일, 힘든 일 많을 텐데 파도타기 하듯 유유히 넘어다오. 아내는 곳곳이 한 가정의 밝은 태양이 되어 구석구석을 밝게 비춰다오. 남편은 실력 발휘하며 애써다오. 우리는 너희가 늘 웃으며 지내기를 기원한다. 사랑해~!

부모님과 곧 태어날 2세에게...

부족한 점이 많은 저희 부부를 챙겨주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가 부모님은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양가에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러운 며느리, 사위가 되겠습니다. 만복아! 우리는 벌써부터 네가 크면 함께 놀이동산에 갈 상상을 한다. 너는 분명히 우리에게 ‘만 가지 복’인 아이야! 사랑스런 공주님, 예쁘고 건강하게 태어나하기를 바란다.

※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외식 이벤트에 사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 문의 sabo@s-oil.com

한식구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아랫사람이 사회인이 되는 걸 지켜보는 손윗사람의 마음은 모두가 물가에 어린아이를 내놓은 듯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신입사원 부모 공장 초청행사에 다녀오니 불안함이 가시더군요. 새로 맞은 동료의 가족까지 배려하는 행사가 고마웠습니다.



배려가 빛난 신입사원 부모 공장 초청행사

신입사원 부모로서 지난 4월에 공장 행사에 초대받고 온산공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소식을 사보 5월호에서 접하게 되니 그 때가 다시 생각나며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선배이자 동료가 될 에스-오일 식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부모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원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웅장한 설비와 장치들을 보니 에스-오일에 입사하게 된 아이가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신입사원들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나의 아들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견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오일 임직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다 갈매기 밧하며 걷는 ‘갈맷길’

부산 기장 등대길

부산해운대 달맞이고개에서 강원 고성통일전망대를 잇는 600km 길이 동해트레일이다. 부산 ‘갈맷길’은 이 여정의 출발점으로 숲·바다·강과 대도시는 물론 고즈넉한 어촌마을의 정취까지 모두 9개 코스(총 264km)로 촘촘히 엮고, 이를 다시 20개 구간· 해변길·갯벌길·숲길·갈대밭길·호수길로 나누어 부산의 아름다운 절경과 숨은 모습들을 두루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과 협의를 거쳐 두만강까지 연결된다면 약 1천400km에 이르는 대장정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기분 좋은 상상 속에 여름파도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갈매기 밧하며 숲과 해변, 포구의 멋까지 즐길 수 있는 ‘갈맷길’ 1코스에 속한 기장 ‘등대길’로 길을 나선다.

코스

기장 공수마을→해동옹궁사→동암마을→
서암마을→대변항 방 파제

▶ 약 14km, 3시간 30분

송정해수욕장 북쪽 가까이에 자리한 기장 공수마을, 어촌체험장으로도 유명한 이곳은 매년 2월이면 ‘고기 많이 잡고, 사고 나지 않고, 행운이 가득 하길’ 기원하는 동해안 별신굿이 열린다. 5월 하순, 공수항 일대는 바다에서 갓 따낸 다시마와 살 오른 멸치를 말리는 건조장을 방불케 하고, 해안 너머에는 너른 갯바위가 펼쳐졌다. 산을 접한 곳은 리조트를 짓는 토목공사가 한창이나, 길손은 공사장을 가로질러 ‘신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잠시 기거한다’는 소나무가 숲을 이룬 시랑산 숲길로 들어선다.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소나무들이 수난을 당했다. 재선충 때문이다.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에 기생하다가 성충이 솔잎을 갉아 먹을 때 빠르게 나무로 옮겨와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일단 감염되어 죽은 나무는 일정 길이로 자른 뒤 1~2㎡ 크기로 쌓아 약을 뿌리고 비닐로 밀봉하여 훈증하거나 소각한다. 그런데 이곳도 재선충이 창궐했

지 숲길 곳곳에, 바다와 만나는 작은 계곡마다 소나무 토막무덤이 즐비하다. 어떤 곳은 밀봉된 비닐이 군데군데 찢겨나가 썩은 잔해가 드러난 채 방치돼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러나 짝조름한 바다내음과 상그러운 풀향기, 고아한 솔향이 버물어진 숲길은 또 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마치 장삼이사들의 삶의 곤곤함을 대변하려는 것처럼 물질하는 잠녀의 고된 숨비소리가 출렁이는 파도를 타고 넘어올 즈음, 제법 큰 임도를 만난다.

군부대가 철수한 너른 터를 지나니 시랑대(侍郎臺)를 알리는 안내판이 보인다. 철조망에 막혀 출입이 어려운 시랑대, 동암마을 남쪽 해변에 있는 바위로 된 대(臺)로서 기장 제일의 명승지라고 한다. 예전에는 원앙대라 불렸으나, 조선 영조 9년(1733년) 시랑 권적이 이곳 풍경에 매료되어 자신의 벼슬 이름을 딴 '시랑대' 석자를 바위에 새긴 이후 많은 시민목객들이 들러 글을 남겼다고 전한다.

시랑대 아래 있는 동굴에 사는 젊은 장사는 용이 잡은 고기를 훑쳐 먹고 살았다. 용은 복수할 기회를 엿보다 장사의 부인과 갓난아이를 한입에 삼켜 버렸다. 이를 안 장사는 용과 싸움을 벌였지만, 결과는 둘 다 죽고 말았다. 그래서일까. 시랑대 동굴에 파도가 치면 부인의 절규가 들려온다고 한다.

시랑산을 넘으면 고려 공민왕의 왕사 나옹 혜근이 창건한 해동용궁사가 바다를 마주하고 자리 잡고 있다. 해맞이하기에 더없이 좋은 이곳은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삼대 관음성지로 손꼽는 가람이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누구나 현몽을 받고 한 가지 소원을 이룬다'는 영험 때문일까. 평일임에도 많은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절 입구에 십이지신상이 불전함을 앞에 두고 길게 늘어선 모습이 특이하다. 아마 삼재(三災)가 든 중생들을 위함일 터인데, 삼재는 자신이 태어난 띠를 따져 3년에 걸쳐 물·불·바람으로 일어나는 재해로 수중(水腫)·심화(心火)·풍병(風病)을 의미한다.

동국세시기 '삼재법'에는 기유축(己酉丑) 생→해자축(亥子丑) 해, 신자신(申子辰) 생→인묘미(寅卯未) 해, 해묘미(亥卯未) 생→사오미(巳午未) 해,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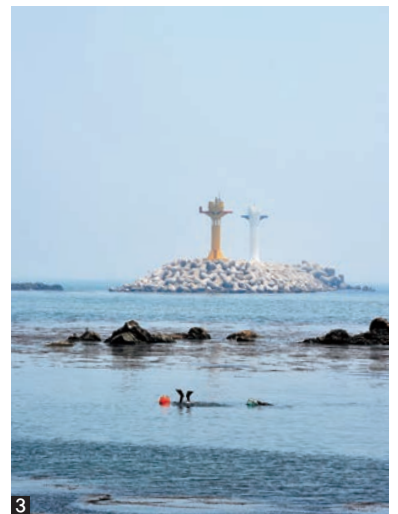
오술(寅午戌) 생→신유술(申酉戌) 해에 삼재가 든다고 했다. 첫 해는 '들삼재', 2년째는 '누울삼재', 마지막을 '날삼재'라 하며, '복삼재'는 삼재 기간에 생긴 좋은 일을 말한다. 보통 정월 초나 정월 14일, 입춘날 삼재경을 읽거나 삼재막이 굿을 하고, 머리가 셋 달린 매나 호랑이를 그린 부적으로 액막이를 한다.

법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만난 포대화상의 배가 유난히 불룩하고 새까맣다. 배를 만지고 쓰다듬으면 아들을 본다는 '득남불'로 소문난 탓에 못 여

인들의 손때가 많이 탔기 때문이다. 바다를 마당으로 삼은 해동용궁사에 특별한 문화재는 없다. 대신 불이문 아래로 바닷물이 드나들고 넘실대는 파도소리와 어우러진 독경소리가 참 매력적이다. 여기에 한 스님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나눈 용궁여인의 전설이 스며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시랑산에서 기우제를 마친 미랑 스님은 달빛 내리는 동굴에서 용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 스님과 사랑으로 만삭이 된 용녀가 산고 끝에 낳은 아기의 땃줄을 끊으

1. 숨이 막힐 정도로 푸른 바다에서 물질 마친 잠녀가 갓 건너편 해산물을 들고 등대가 있는 마을을 향해 가벼운 걸음을 옮겨간다.
2. 바다에서 갓 떠낸 다시마를 말리고 손질하고 있다.
3. 대변항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2기의 천하대장군등대, 일명 마징가2등대의 모습.
4. 5.6m 등탑 위에 도자기로 구운 찢꼭지 모양의 지붕을 얹어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젓병등대.



려는 순간 집채만 한 큰 파도가 덮쳤다. 옥황상제는 이를 가엽게 여기고 평소 착하기 짝이 없던 용녀는 천상으로 올려 보내고, 미랑 스님만 파도에 휩쓸려갔다.

애절한 미랑의 절규를 뒤로 하고 일출암을 지나 국립수산물과학원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쁜 그림을 배경삼아 해안을 따라 걷는다. 국립수산물과학원은 1921년 수산시험장으로 개원한 이래 해양과 수산 과학 연구개발의 요람이다. 최근에는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와 기후변화, 수산자원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전략품목을 육성·지원하고,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같은 수산정책사업을 적극 수행한다. 또 수산해양과학의 기술발전 과정과 미래를 소개하는 수산해양종합과학관이 있다. 수산생물, 바다 목장, 수족관 등 15개 주제별 전시영역을 갖추고 참고래의 실물 골격, 선박조종체험실, 국내 최대 크기의 산갈치 박제 등 7천400여 점을 보여준다. 끝은길을 따라 나오면 동암마을이다. 짬뽕을 품은 따가운 햇살 아래 멸치를 말리는 노인들의 일손이 재다. 숨이 막힐 정도로 푸른 바다에서 이제 막 물질을 마친 늙은 잠녀가 바다에서 갓 건져낸 해산물 물에 손에 들고 등대가 있는 마을을 향해 가벼운 걸음을 옮겨간다.

작은 언덕 입구, 군작전지역이라 무단출입과 사진 촬영을 금한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철책 언저리를 넘어서니 대변향이 아슴하다. '죽기 전에 꼭 가 봐야 할 국내 여행 100'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5. 첫병등대 맞은편에 서있는 빨간색 달벼슬등대는 관직과 성공을 뜻한다.
6. 유배 온 벼를 위로하기 위해 친구 다섯 명이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오랑대 바위 끝에는 동해바다에 제를 올리는 용왕단이 있다.
7. 바람이 몰려오는 대변항 방파제 곁머리에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를 염원하며 세운 '월드컵 등대'가 서있다.





8. 수산생물, 바다목장, 수족관 등 15개 주제별 전시영역을 갖춘 수산해양종합과학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며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연휴는 휴관. 관람은 무료다.
9. 시랑산 숲길 곳곳에 방치된 소나무 무덤들.
10. 해동용궁사를 지나면 바다를 접한 해안길이 동암마을까지 이어진다. 사진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해양종합과학관 입구를 지나가는 길손들.

사진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일출 촬영장소로 잘 알려진 풍광 수려한 오랑대(五郎臺)다. 기장으로 유배 온 벼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내 다섯 명이 모여 이곳에서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이야기 때문일까. 문득 기암절벽에서 파도소리 안주 삼아 술잔을 나누었을 다섯 남자들의 호연지기를 떠올려 본다. 오랑대 끝 바위에는 동해에 제를 올리는 용왕단이 있어 멋스러움을 더하지만, 현재 오랑대공원을 만드는 공사로 일대가 어수선하다.

연화리 서암마을에 닿았다. 기다리던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고, 세상도 함께 변해가는 것처럼 포구에는 항상 만남과 이별이 혼재한다. 그래서 등대로 가는 길은 외로움과 그리움, 기대감으로 잔뜩 깔려있다.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젓병 등대가 여기에 있다. 5.6m 등탑 위에 도자기로 구운 젓꼭지 모양의 지붕을 얹어 전체 외관이 젓병처럼 보인다. 외벽에는 144명의 어린이와 아기의 손·발 도장이 찍힌 타일을 붙였다. 저출산 시대

에 맞서 출산 장려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기념하는 뜻으로 세웠는데, 여기 또한 아이를 바라는 부부들의 간절한 손때가 묻어 있다. 젓병등대 맞은편에 있는 빨간색 등대는 관직과 성공을 의미한다는 닭벼슬등대다.

외판 섬 외판 마을 외판 절벽

“등대로 가는 길이 어디죠?”

“저리로 가시오.”

그 사람 뒷모습이 등대 같았다
— ‘그 사람의 뒷모습’, 이생진 —

봄이면 멸치로 유명한 대변항은 ‘아름다운 어촌 100선’으로 선정됐다. 옛 이름은 용암. 포구 앞에 위치한 죽도가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여 가장 최대의 포구로 성장했다. 거북모

양을 한 죽도는 가장 지역에서는 유일한 섬이다. 대나무가 많아 죽도라 했지만, 지금은 동백이 울창하여 동백섬이라 불려도 손색없다. 최근 죽도와 대변항을 잇는 다리가 완성되어 관광객들이 쉽게 오갈 수 있다.

해마다 4월이면 이곳에서 멸치축제가 열린다. 어부들이 신고 온 그물에 하얗게 달라붙은 멸치를 털어내는 모습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곳만의 장관이다. 멸치와 미역, 다시마 같은 건어물과 활어를 파는 가게들을 지나 방파제로 향한다. 바람이 몰려오는 끄트머리에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 개최를 염원하며 세운 ‘월드컵 등대’가 지름 5m 크기로 만든 공인구 ‘피버노버’를 품에 안고 있다. 4강에 오른 브라질·독일·터키·대한민국 선수 명단과 출전 성적을 등판에 새겨놓았다. 그 뒤로 마징가제트를 본뜬 천하대장군등대 2기가 대변항의 변顔を 지원하는 뜻을 담아 밤바다의 안전항해를 지키고 있다. 🌊



리더는 ‘준비’하고 ‘책임’져야 한다

동부영업지원팀
이동구 사우의 롤모델
‘충무공 이순신’



“
큰 사고들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겼다.
비극은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운다.
나의 롤모델이자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삼도수군통제사였던 충무공 이순신이
문득 떠오른다.
”

‘충무공 이순신’

글 | 이동구(동부영업지원팀)

이순신은 이기고 죽었으며, 죽고 나서도 이겼다. 전쟁 7년... 일본 수군의 장수들은 이순신이 살아 있을 때에 기를 펴지 못했다. 그는 실로 조선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동양 3국을 통틀어 최고의 영웅이었다.

— 「근세일본사」 中

유년 시절 위인전을 통해 충무공 이순신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 속에서 발견한 이순신은 ‘책임지는 리더’, ‘승리한 리더’였다. 백의종군을 할 때에도 삼도수군통제사를 맡았을 때에도 충무공 이순신은 한결같았다. 누명을 썼더라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정의 앞에 당당하며, 적 앞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必死則生), 살려고 하면 죽는다(必生則死)’면서 36번의 크고 작은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놀라움 그 자체다. 세계 해전 역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다.

나는 해군에 자원해 입대했다. 군복무 중 운 좋게도 외교사절단으로 선발되어, 121일간 배를 타고 세계일주를 하면서 충무공의 후예로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가슴 속 깊이 충무공을 향한 존경심은 더욱 커졌다. 나는 리더라면 자기가 책임지는 대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장은 배와 함께, 비행기 조종사는 비행기와 함께, 기업의 책임자는 기업과 그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라는 말처럼 이순신을 보면 리더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난중일기’로도 유명한 이순신의 철저한 기록정신을 닮고 싶다. 탁월한 리더십도 기록정신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나도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될 날이 올 거다. 그 때 충무공처럼 현명한 리더가 되고 싶다.

필사의 각오와 강직함으로 조선을 구한 바다의 수장

“영국의 넬슨은 군신(軍神)이라고 할 정도의 인물이 되지 못한다. 해군 역사상 군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독이 있다면 이순신 한 사람뿐이다. 이순신과 비교하면 나는 하사관도 못 된다.”

—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

(러일전쟁 당시 발트함대를 격파하고 자신을 잃은 제독에 버금가는 군신(軍神)으로 치켜세우자)

이순신의 삶을 짧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다.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해(汝諧), 시호는 충무(忠武). 서울 건천동(乾川洞, 현재 인현동)에서 태어났다. 무과시험에서 낙마해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버드나무 껍질로 다리를 싸매고 과정을 마칠 정도로 끈기가 강한 사내, 억울하게 백의종군을 했지만 곳곳이 이겨내고 다시 삼도수군통제사가 된 오독이 같은 사내, 「난중일기」를 남길 정도로 문무를 겸한 사내, 임진왜란 전체 판세를 흔든 대단한 업적의 전투를 해낸 조선시대의 위대한 리더였다. 옥포대첩, 사천포해전, 당포해전, 1차 당항포해전, 안골포해전, 부산포해전, 명랑대첩, 노량해전 등에서 승리했는데, 특히 명랑대첩에서는 13척의 함선과 빈약한 병력을 거느리고 133척의 적군과 대결하여 31척을 격파했다. 1598년 11월에 명나라 제독 진린(陳璘)과 연합하여 철수를 위해 노랑에 집결한 일본군과 노랑해전을 벌였고 혼전 중 유탄에 맞아 전사했다.

흔히 충무공 이순신을 ‘성웅’이라고 일컫는다. 위대한 인물을 추앙하고자 하는 명예로운 칭호다. 뛰어난 인물이라면 수식할 수 있는 말은 매우 많다. 그러나 재능과 노력, 해당 부분에서 이론 업적과 인격 등 삶 전반을 아우르는 특별함이 없다면 성스러운 성(聖)자는 붙이기 어렵다.

살아서 조국의 영토를 지켰던 그는 이제 광화문광장이라는 대한민국 수도의 상징적 공간에 동상으로 서서 민족의 앞날을 지켜보는 듯 서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순신을 제대로 알고 있나? 우리가 아는 이순신과 모르는 이순신에 대해 살펴봐도 좋겠다. 🌻



아스라이 빛을 밝히는

청정무구한 밤

전북 무주군

‘무주반딧불축제’

무주반딧불축제

일시 2014년 6월 7일 ~ 15일(9일간)

장소 전라북도 무주군 일원(남대천, 지남공원, 반딧불전통
공예문화촌, 반디랜드, 반딧불이 서식지 등)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로 '무주예체문화회관'을 검색하면 된다.
서울/경기도 방면에서 약 3시간 10분, 부산에서 약 3시간 10분,
광주에서 약 2시간 40분 소요된다.

특징 2014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최우수축제

문의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063-324-2440)

www.firefly.or.kr



무주에는 청정지역의 척도가 되는 곤충 반딧불이가 산다

우리나라 경승지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을 꼽으라면 단연 무주구천동
이 손가락 안에 꼽힌다. '정감록'과 '격암유록' 등 술한 예언서에서
도 십승지지(十勝之地) 중의 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 전북 무주의 일
대다. 함양과 거창의 안의삼동이 동천구곡(洞天九谷)의 대표라고 일
컬어지지만 '무주구천동에 비견할만하다'는 평가로 불은 이름이고
보면 무주구천동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는 말이 된다.

덕유산국립공원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지만 그 중
심은 무주다. 다시 말하자면 덕유산은 무주의 뛰어난 풍광을 대표
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통해 우리
는 그 곳의 청정도를 알 수 있다. 1급수에 버들치, 열목어와 같은 물
고기가 산다는 건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청정한 곳에 사는 곤충
은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반딧불이가 청정지역에서만 산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곳은 어디어디일까? 손꼽
아보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다.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서식
지는 무주 한 곳 뿐.

반딧불이는 발광생물로서 생물학상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름
밤에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는 국민 정서에도 중요하다. 특히 형설(螢)

雪)의 공(功), 즉 진(晉)나라 차운(車胤)이 반딧불 밑에서, 손강(孫康)이 눈에 반사된 달빛으로 글을 읽고 출세했다는 고사로 청소년의 교육상 큰 가치가 있는 곤충이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각지의 습지와 깨끗한 하천에 많이 살고 있었으나 살포농약과 각종 오염물에 의한 수질악화로 대부분의 서식처가 파괴되어 멸종 위기에 있다. 그나마 전북 무주군 설천면 일원의 하천에 아직도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되어 있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어른,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아이

무주반딧불축제에 올해로 열여덟 번째를 맞는다. 반딧불이 자체의 희소성 때문에 초기부터 알음알음 관광객이 찾아들었고 20년에 가까운 햇수 동안 진행하면서 프로그램도 체계화돼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 슬로건은 'go back to Nature'이다.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것, 힐링은 단어 사용의 유행은 지났어도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가치다. 우리는 힐링이 범람하는 시절을 겪으며 가장 이상적인 힐링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월 7일부터 15일까지 무주 남대천과 반디랜드 일대에서 열리는 반딧불축제. 반딧불이가 사는 계곡으로 떠나는 신비탐사와 엄마 아빠와 1박 2일 반딧불이 생태탐험, 반딧불이 푸른 교실 등 반딧불이 주제 프로그램, 무주 출신 조선시대 화가 최북의 이야기를 그린 브랜드 공연 등이 볼거리다. 주민들이 재현하는 전통불꽃놀이인 낙화놀이, CNNgo 선정 '한국에서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50선' 중 하나인 남대천 쉼다리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외에도 반딧불을 형상화한 일루미네이션 빛 거리에서는 빛의 축제이기도 한 반딧불축제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어른들도 사실 반딧불이를 보는 경험이 흔치는 않다. 그렇기에 더욱 어른에게는 반딧불축제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또한 형설지공의 고사를 들으며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의 빛, 반딧불을 바라볼 어린이들에게는 신비로운 경험이자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줄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반딧불이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때가 온다. 반딧불이는 그들의 고장에서 빛나고 있을 거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초여름 밤하늘을 은은하게 수놓는 반딧불이의 아름다운 군무(群舞)를 보러 가보자. “나는 개똥벌레~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나를 위해 한번만 노래를 해주렴~” (개똥벌레는 반딧불이의 별명 중 하나다) 🌟



충북 영동 금강주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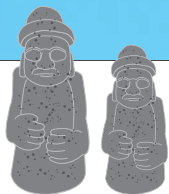
영동군에서 옥천군으로 향하는 4번 국도(난계로)에 위치한 주유소로, 길 건너편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어 여름 휴가철 여행코스도 좋다. 주유소 옆으로 난계국악원, 국악박물관, 난계사 등이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다.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545-1
☎ 043)742-7500



반딧불축제 오실 때
금강주유소
꼭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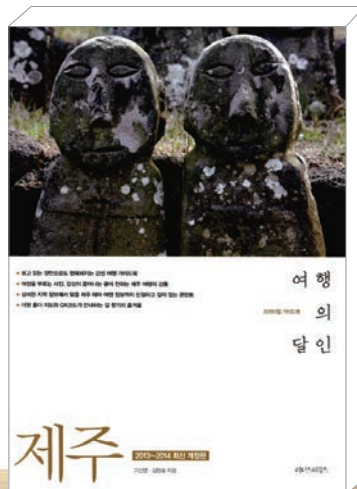
대전지사
손대검 사우



당신의 제주 여행

레벨은 몇입니까?

고선영, 김형호 <제주 여행의 달인>



공항을 나서자마자 아자수를 보니 실감이 났다. '드디어 일상을 벗
어났구나. 내가 여행을 왔구나.' 하고 말이다. 날씨는 흐렸고 바람은
거셴다. 간간히 바람 사이로 빗방울도 섞여 있다. 흠뻑리듯 비가 왔
다. 높은 습도에도 불구하고 그리 불쾌하지 않았다. 곧 날이 개였고
변화무쌍한 거대한 섬 제주가 투명한 얼굴을 드러냈다.

10여 년 전 제주를 처음 방문한 지인은 이렇게 그 당시를 표현했다.
최근에 다시 한 번 제주에 다녀온 그 지인은 '조금 변하긴 했지만
느낌은 그대로'라고 잘라 말했다. 번잡하지 않은 거리, 해안을 따라
펼쳐진 도로와 화강암을 쌓아 만든 돌담까지 제주는 이국적인 풍
광으로 첫 눈길을 사로잡는다. 몇 번을 가도 매력적인 곳이 제주다.
"생각을 잠깐 멈추고, 복잡한 일상으로부터 '생각병'을 치유하고 스
스로 자유로워지는데 여행만큼 잘 듣는 약은 없는 것 같다. 나는
그 병을 제주의 바람과 바다와 숲과 길 위에서 고쳤다. 그리고 지
금 당신을 이 치유의 공간으로 초대할 참이다." <《제주 여행의 달인》
프롤로그 중에서>

관광지로만 치부되었던 제주는 올레길이 생기면서부터 치유의 공
간으로까지 각광받았다. 제주를 찾는 목적과 사람은 제각각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유와 치유의 여행'을 지향한다는 공
통점을 갖는다. 제주를 향한 사람들의 욕망은 커져만 갔다.

<제주 여행의 달인>은 2011년 제주 여행의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가이드북을 표방하며 출판되었
다. 가이드북이라는 게 응당 그러하듯이 객관적인 정보를 담다가
특별함이 없어진다. 이 책의 장점은 여행작가 고선영과 사진작가
김형호 부부가 제주 현지에서 2년간 겪은 실제의 삶을 여행정보로
다뤘다는 점이다. 고선영은 연극 평론가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
로 잡지사에 입사했다가 우연히 여행 담담을 맡으며 아예 눌러앉
아 버렸는데 10년이 훌쩍 넘는 기자 생활을 하며 세계 80여 곳의
도시를 여행했지만, 다녀 보니 우리나라가 제일이다란다. 김형호는
사진기자로 마흔이 넘으면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자고 했던 다짐을
이 책을 쓰던 중 실천했다. 둘의 신혼집은 제주다. 여행지로서, 살
의 터전으로서 제주에 가지는 애정을 책 속에 온전히 쏟아부었다.
다시 말해 객관적인 여행정보를 주관적으로 풀어냈다는 말이다.

제주시에서 마라도까지 제주 토박이만이 알 수 있는 지역별 여행
정보는 물론, 제주 테마 여행 및 일정별 · 상황별 맞춤 여행 정보가
지 현지에 사는 작가만이 짚어주고 안내할 수 있는 전문성과 섬세
함이 여행의 기쁨을 더해 준다. 제주에 처음 방문한 사람이든, 제주
여행 만렙인 사람이든 충분히 볼만한 책이다.

지금도 제주는 쏟아지는 관심만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이 책은
매년 이러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며 개정판이 출간되고 있어 앞으
로도 당분간 '제주의 최신 여행정보'를 얻고자 하는 여행객의 필수
도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 🌻

〈제주 여행의 달인〉 이렇게 읽었습니다



최명원(생산조정팀)

공장 여자동기들과 제주여행을 계획하면서 관련책을 찾아보았다. 단연 〈제주 여행의 달인〉이 눈에 띄었다. 단순여행정보를 제공하는 기존의 여행가이드북을 넘어서 지은이가 제주에 살면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멋진 사진과 함께 풀어놓았기 때문. 특히 혼자 여행하기, 여자친구들과 여행하기, 다리 아픈 부모님과 여행하기 등 여러 상황에 따른 일정 제시가 큰 장점이다. 우리 제주여행의 섬세하고 자상한 동반자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진호(Aromatics생산1과)

결혼한 지 2년. 봄꽃을 구경할 겸 신혼 분위기를 내려고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준비했다. 인터넷으로 제주도 맛집 등 명소를 찾던 중 한 선배님께서 〈제주 여행의 달인〉을 추천하셨다. 첫 제주도 여행이라서 몰랐을 부분을 미리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덕분에 아내와 책속에 담긴 멋진 풍경을 찾아다니면서 2년 전 푸켓에서의 신혼여행에서만 행복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광동(송유/동력공정과)

누가 제주여행을 한다면 자신 있게 이 책을 권해주고 싶다. 처음 책 제목을 보았을 때엔 '정말 이 책을 읽으면 제주 여행의 달인이 될까?' 의문이었지만 기우일 뿐이었다. 매우 충실한 내용으로 차 있어 인터넷 정보 검색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고마운 책! 자세한 제주도 지도뿐만 아니라 인기 게스트하우스 정보와 '제주의 맛 Best 12'가 내 맘에 쏙 들었다. 관광지 위주의 소개가 아니기에 더 더욱 여행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우리 아이 제주 여행
김성희 / 시공사

아이와 함께 제주 여행을 계획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자녀교육서'로, 지은이가 두 달간 아이들과 함께 제주를 여행하며 검증한 정보만을 담았다. 여행의 재미도 누리면서 아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명소를 엄선하고, 장소별 체험학습 포인트를 짚어준다. 가족여행자에게 적합한 제주 여행 가이드북이다.



제주 버스 여행
윤성화 · 박순애 / 나무수

인터넷 서점 MD 출신의 부부가 결혼 후 제주로 가 2년간 섬 곳곳을 누빈 기록이다. 두박이 부부가 소개하는 순도 100% 버스 여행 가이드북. 빠르고 편리하게 오가는 여행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느린 여행'의 재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손그림 특유의 느낌이 살아있는 일러스트 역시 여행 욕구를 부추긴다.

게임하다가 밤새지 말~란 말이야

게임 중독(게임 과몰입)

한 국회의원이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게임중독법은 뜨거운 감자가 됐다.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만큼 게임중독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금, 당신도 게임 중독일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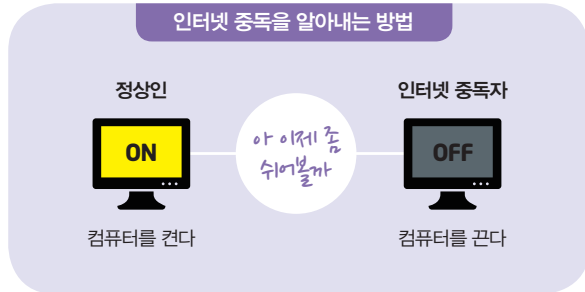


글 쓰는 순서

알코올 중독
스마트폰 중독
담배 중독
쇼핑 중독
카페인 중독
게임 중독
탄수화물 중독
일 중독
인스턴트 중독
취미 중독
설탕 중독
관계 중독

인터넷 중독과 게임 과몰입

아래는 국내 검색포털사이트에서 회자된 내용이다. 바로 인터넷 중독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인터넷 중독과 더불어 ‘게임 중독’이 사회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게임에 중독된 부부가 갓 태어난 아기를 굶어 죽도록 방치한 사건, 닥터 동안 밤잠을 설치며 게임을 하다가 호흡곤란으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 게임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중학생의 사건 등 극단적인 사례 또한 끊이지 않는다.

의학계나 심리학계에서는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행위에 대해 중독이라는 임상적 진단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2013년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 학계에서는 게임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신 ‘게임 과

몰입’이라는 표현을 쓴다.

게임 과몰입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의력 결핍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게임중독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한다. 또한 새로움을 원하는 성격, 보상 의존성이 강한 성격, 현실이나 위험을 회피하는 성격 등에서도 쉽게 게임 과몰입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게임에 노출되는 시기가 빠르면 생후 18개월부터라고 한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지, 신체, 사회발달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는 아동 혹은 청소년의 경우 쉽게 게임 과몰입에 빠져들 수 있으니 부모님들이 주의해서 예방토록 해야 한다.

지금 자녀가 게임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래의 방법을 써볼 만하다.

- 게임세계가 아닌 현실세계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운동, 음악, 미술 등의 취미생활을 가지게 도와주는 것이 좋다.
- 컴퓨터를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물건으로 인식하도록 거실에 두고 사용한다.
- 작은 일도 자주 칭찬해주고, 적극적이고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가르쳐준다. 자녀의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다.
- 왜 자녀가 게임을 좋아하는지 게임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게임중독 진단 자가 테스트

아래의 13가지 항목 중에 0~3개까지는 게임 중독자가 아니다. 적당한 선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정도다. 4~8개에 해당하면 게임 중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다. 게임하는 시간을 정해 중독되지 않게 예방해야 한다. 9~13개일 경우 게임 중독이다. 게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까지 많은 지장을 받으니 상담센터 및 전문치료센터를 통해 치료받아야 한다.

- ① 밤새 게임을 하느라 회사라던가 학교에서 졸리다.
- ② 꿈에서 게임에 관한 꿈을 꾸 적이 있다.
- ③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곤 모든 시간을 게임 하는데 시간을 쏟는 경향이 있다.
- ④ 게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 ⑤ 게임을 통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⑥ 게임을 하고 있지 않아도 게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
- ⑦ 게임 때문에 가족들과 다툼이 있거나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 ⑧ 컴퓨터를 키면 제일 먼저 게임을 할 때가 많다.
- ⑨ 게임을 하다가 자신의 캐릭터가 죽으면 화가 난다.
- ⑩ 게임을 하다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는 등 짜증을 낸다.
- ⑪ 게임을 못하면 짜증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 ⑫ 현실보다 게임에서 자신이 더 유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⑬ 날을 새며 게임을 한다.



독자퀴즈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다섯 군데)

지난호 퀴즈 당첨자

주유상품권

이불이 고객센터팀
정만식 수소3과
김점숙 솔레주유소(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박동림 고객(경북 경주시 안강읍)

USB저장장치

양병훈 품질관리1과
하현주 총무과 하두곤 사우 자녀
안영환 직지주유소(경북 김천시 봉산면)
김호원 경안주유소(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손 모아 만드는 사보 꿈 모아 그리는 내일

사보 편집실에서는 사우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개인은 물론 팀/과, 부/부문 단위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뜻 있는 사료로서 기록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원 개인과 가족, 팀/과 구성원 등 다채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사보 편집실의 문을 적극 두드려 주십시오.
사보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sabo@s-oil.com



〈주요소식〉 챔피언스 클럽 시상 및 인센티브 투어
우리 주요소도 챔피언스 클럽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각오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준기(덕진주유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주요소식〉 신입사원 부모 공장 초청
신입사원의 부모와 형제, 친척 등 가족들이 일터에 왔더니, 정말 내 가족이 다녀간 듯 반갑습니다.
박홍양(분해2과)



〈소식 모아보기〉 실업탁구의 새바람 챔피언은 우리의 것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의 탁구스타 유남규 감독이 우리 탁구단의 사령탑이 되어 기쁩니다.
박성근(분해1과)



〈두런두런 수다방〉 재미와 행복 수확한 우리 가족 '딸기 체험'
상큼한 딸기 수확 사연으로 가족의 소중함과 봄의 싱그러움을 맛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황의인(고객,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행5길)



〈두런두런 수다방〉 영혼의 소리 색소폰으로 '날마다 청춘'
중년 남자들이 색소폰으로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최진욱(수소3과)

중년의 색소폰 연주가 멋져 보이고 건강에도 좋다니 남편에게 권하고 싶네요.
신윤숙(환경운영과 김진호 사주 부인)



〈가족 이야기〉 김남규 사주 가족
입사 동기인 사주가 가족과 함께한 새로운 모습이 좋아 보이네요.
정영길(탈황1과)



〈견고 싶은 길〉 예산 느린 교부랑길
일상을 벗어나 좋은 풍경 속에서 시간의 자유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상준(Aromatics생산2과)



〈나의 롤모델〉 개그맨 김병만
바닥에서 시작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꿈을 이루고 자만하지 않는 모습이 대단해 보입니다.
강봉원(충무주유소, 충남 논산시 채운면)



〈마음 읽기〉 카페인 중독
커피를 좋아하는 터라 기사를 유심히 읽었어요. 하루에 한 잔씩만 마시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강미선(고객,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9 Corporate Initiatives

9가지 전사전략과제로
미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Global standard in SHE

Management

